■ 민족문화연구 제89호(2020.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05-242.
http://doi.org/10.17948/kcs.2020..89.205

江都時期 고려 왕실의 假闕 조영과 延基業

김성환(金成煥)*

목 차

1. 머리말
2. 무신집권기 三蘇 조성과 山川裨補
3. 강화 천도 이전의 연기업과 左蘇 阿思達
4. 白勝賢의 假闕 조영 건의와 三蘇
5. 맺음말

국문초록

무신집권기 이후 왕실의 연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산천비보도감·重房堤로 대표되는 무신들의 연기업이 중방을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무신들은 문신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를 확인하려 했고, 무신이 관련된 건물·관청의 地氣를 비보하는 방법도 그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고종 3년(1216) 거란유종의 침략은 서반의 연기업에 일정한 전환을 가져오게 했다. 위기감을 가진 최씨정권이나 왕실 모두 그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최선의 연기업은 무신집정자 권력 아래에서의 왕실 유지였다. 최충헌은 흥왕도감의 설치하고, 성종의 眞殿이었던 乾元寺를 부수어 액막이했으며, 백악에 새 궁궐을 짓는 등 거란 침입을 기양하여 왕실연기업을 실행하였다.

몽고 침략으로 고종 19년(1232) 6월 전격 추진된 강화 천도는 연기업의 방법과 장소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수반했다. 고종 21년에는 扶踈山에서 갈라진 좌소 阿思達로

* 경기도박물관 관장.

비정된 옛 양주 땅에 남경 가궐을 지어 어의를 봉안했고, 개경 수창궁에 太祖神御를 봉안하여 어의와 함께 4개월을 단위로 개경과 남경에 교차 봉안하는 연기업을 실행했다. 국왕이 개경과 남경에 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나라 8백년 왕업이 고려왕조에 지속될 것을 염원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조치는 고려왕실의 永業地였던 부소산 좌곡이 도참에서 좌소 백악, 단군전승에서 고조선의 도읍지[길지]인 백악산아사달과 융합되면서 좌소 아사달로 비정되는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전쟁의 수습책으로 몽고가 강도에서의 출륙과 국왕 친조를 제시함으로서 이를 타개할 또 다른 연기책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었다. 백승현의 延基業이 부각된 것은 이에 따른 것이다. 그 내용은 앞 시대에 추진되었던 三蘇에서 연기궁궐 조성과 비교할 수 있는 혈구사・삼랑성・신니동에서 이궁・가궐 창건, 어의대 봉안, 문수신앙을 배경으로 밀교와 도교가 섞인 법화경 법석과 대일왕도량・대불정오성도량 개최였다. 하지만 고종 45-46년 추진된 연기업은 고종의 승하로 혈구사에서 대일왕도량과 법화경 법석 개최만 이루어졌고, 삼랑성・신니동에서의 가궐 조영과 불교도량 설행은 개최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원종 5년(1264) 국왕의 몽고 친조에 대한 무사귀환을 목적에서 삼랑성가궐을 중심으로 재추진되었다.

주제어: 延基業, 江都, 고려왕실, 三蘇, 左蘇, 白勝賢, 穴口寺, 三郎城假闕.

1. 머리말

몽고의 침입은 고종 18년(1231) 8월 살리타이가 이끈 鐵州에서의 도륙으로 시작되었다.[1] 그들은 12월까지 5개월 동안 서경・귀주・황주・개경・경기 일대・광주・충주까지 이르며 고려를 구략했다. 이 때문에 무인집정자 崔瑀(?-1249)는 12월 강화로 천도를 결심하고, 이듬해 6월 이를 단행했다.[2] 이후 강화는 원종 11년(1270) 5월 개경으로 환도할 때까지[3] 39년간 고려왕조의 國都로 자리했다. 최우가 천도를 결심한 것은 11월 말 몽고군에게 닭과 개의 씨까지 말려버릴 정도로 평주가 완전히 도륙을 당했고, 예성강가 백성들이 살육되고 수많은 가옥이 불에 타 개경 인심이 흉흉해져 소요가 일어났

1) 『고려사』 권23 고종 18년 8월 임오(29일).
2) 『고려사』 권23 고종 19년 6월 을축(16일).
3) 『고려사』 권26 원종 11년 5월 임술(23일).

기 때문이었다.[4] 이후 강화는 江都[5] 또는 江華京으로 불렸다. 이것은 上京인 개경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방위가 중심이 된 서경・동경・남경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급작스런 천도였기 때문에 강화는 국도로서 아무런 기반이 준비되지 못했다. 최우는 당장 천도한 다음 날부터 二領軍을 동원해 궁궐을 짓기 시작했다.[6] 하지만 7월 개경을 떠나 강화에 들어온 국왕은 강화객관에 머물러야 했다.[7] 『고려사』에는 고종 21년 정월에 "각 도의 民丁을 징발하여 궁궐과 관아를 지었고",[8] 2월에 "고 참정 車倜의 집을 봉은사로 삼으면서 毬庭과 궁전, 절[寺社] 등의 이름을 모두 개경[松都]의 것을 따랐으며, 팔관회・연등회・行香道場의 법식도 하나같이 옛것을 따랐다"고[9] 기록했다. 이로 미루어 천도한 지 2년이 지난 고종 21년이 되어서야 도성의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려왕조는 개경이 아닌 강도를 중심으로 왕실 裨補를 위한 延基業을 전개했다. 거기에는 몽고와의 전란을 극복하려는 염원과 함께 왕실의 안녕, 太平年 기원 등이 담겼다. 이 글에서는 강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고려왕실의 연기업에 대해 검토하려고 한다. 摩利山塹城에서 원종의 親醮가 어떤 배경에서 실행되었는지를 보다 정치하게 검토하려는 목적에서이다. '延基'란 "基業, 즉 왕업을 늘인다"는 정도의 의미이다. 고려왕실에서는 이미 전기부터 풍수도참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기업이 실행되었다. 강도는 피란국도였다는 점에서 개경과는 다른 차원의 연기업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는 강도에서의 안녕도 담겨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란을 끝낸 후 개경으로의 환도와 번영에 대한 기원을 담았을 것이다. 하지만 연기업 자체가 당장에 닥친 현안을 중심으로 베풀어졌다는 특징이 있어 강도에서의 그것은 몽고의 군사적인 압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4) 『고려사』 권23 고종 18년 11월 경술(28일); 신해(29일).
5)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30년 12월.
6) 『고려사』 권23 고종 19년 6월 병인(17일).
7) 『고려사』 권23 고종 19년 7월 병술(7일).
8) 『고려사』 권23 고종 21년 1월 계해(24일).
9) 『고려사』 권23 고종 21년 2월 계미(14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글은 江都時期에 고려왕실의 연기업의 내용과 의미를 상세하게 규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하지만 그 배경적인 이해를 위해 무신집권기 연기업의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종 이후 왕실연기업은 무신들에 의해 위축되었고, 무신정권 혹은 무신집정자의 연기를 위한 비보책이 설행되었는데,[10] 그 내용을 살펴 고종 때 전개된 연기업을 이해하는 배경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고종 때의 연기업은 천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피려고 한다. 천도 이전의 연기업은 개경을 중심으로 전개된 반면에 이후에는 강도를 대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왕실의 영향범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고종 말에는 왕정복고가 이루어진 가운데 몽고의 국왕 친조와 출륙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받아 연기업을 적극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術士 白勝賢(생몰년 미상)과 穴口寺・三郎城・神泥洞에서의 假闕 조성, 大日王道場・大佛頂五星道場 설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을 명종 때 추진된 三蘇를 중심으로 한 연기업과 비교하여 그 성격에 접근하고자 한다. 아울러 같은 지역과 내용으로 다시 전개된 원종 때의 연기업과도 비교하려고 한다.

2. 무신집권기 三蘇 조성과 山川裨補

의종 24년(1170) 9월 의종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이후 국왕을 교체하는 전횡을 일삼으며 원종 11년(1270)까지 백여 년 동안 정권을 오로지하였다. 무신집권기 후반에 해당하는 고종 18년(1231)에는 세계제국으로 부상하던 몽고가 고려를 침입했다. 이후 고려 전역은 40여 년에 걸친 구략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고, 고려왕조는 개경을 버리고 강화로 천도하여 이에 대응했다. 또 무신집권 말기부터 이루어진 몽고와의 강화 협상 결과, 개경으로 환도가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80여 년의 원 간섭기가 시작되었다.

---

10) 고려시대 도참과 관련한 延基業에 대해서는 李丙燾의 선험적인 연구를 깊이 있게 참고할 수 있다. 李丙燾, 『高麗時代의 硏究』(개정판), 亞細亞文化社, 1979. 특히 무신집권기의 도참에 대해서는 「高麗의 中期-延基・巡住中心의 圖讖」, 같은 책, 245-300면과 이재범, 「최씨정권의 성립과 산천비보도감」, 『사림』 제5집, 수선사학회, 1989가 참고된다.

고려왕실의 연기비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은 고려 전기부터 불교와 풍수도참의 결합으로 시행되었다. 국도인 개경의 地氣를 보완하려는 적극적인 방법이었다. 이에 대한 보양책은 건국 이전 왕건의 先系가 송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적되었다. 신라 監干으로 풍수에 밝았던 八元의 권유로 康忠은 扶蘇山 북쪽에 있던 扶蘇郡을 남쪽으로 옮기고 소나무를 심어 바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일이 있었다. 또 道詵의 예언에 듣고 세조[王隆]는 백두산 水母木幹의 지맥으로 연결되어 馬頭 형국의 명당이었던 자신의 집터—후에 延慶宮의 奉元殿이 되었다—에 자신의 오행인 水의 大數에 따라 36區의 집을 지었다.[11] 그리고 그것은 개경의 지기와 관계하여 전기부터 서경 및 남경 건설과 운영으로 대표되었다.[12] 문종 때에는 태사령 金宗允에게 (예성)서강 餠嶽 남쪽을 相地하게하여 長源亭을 지었고,[13] 이후 의종 때까지 국왕의 정례적인 행차를 통해 개경의 지기를 북돋았다.[14] "태조가 통일한 병신년(936)부터 120년이 되는 해에 [예성]서강 변에 있는 君子御馬의 명당에 이궁을 지으면 國業이 연장된다"는 도선의 『松岳明堂記』에 따른 것이다.[15]

의종 역시 서경과 남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순행을 했지만,[16] 왕실

---

11) 『고려사』 고려세계.

12) 후대이지만 공민왕은 태조 이래의 삼경 경영을 三蘇巡駐로 파악하여 이를 실행하려고 했다. 고려 전기 연기비보의 三京 운영이 무신집권기 三蘇 설치를 거쳐 후기에 삼소순주로 변화해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7월 갑진(12일). "幸佛恩寺. 又幸興國·法王二寺, 下敎曰, 昔我太祖, 每當四仲之年, 巡駐三蘇, 予亦將幸平壤, 巡金剛山, 駐駕忠州."; 18년 8월 을축(3일). "(…) 時以巡駐三蘇之敎, 發民除道, 多損禾穀, 又於平壤·忠州, 皆作離宮及公主魂殿, 儲峙供頓, 民甚苦之."; 권132 열전45 반역 신돈. "旽密令春富, 請移都忠州, 王怒, 旽托言, 松京濱海, 海寇可畏, 以解之. 王乃下令, 將巡駐三蘇, 發民除道, 又於平壤·忠州, 皆作離宮及公主魂殿, 峙供頓, 民甚苦之, 然畏旽, 無敢言者, 判司天監陳永緖等, 上書以爲, 近者, 太白晝見, 又年饑, 靜吉動凶. 王曰, 何晩奏耶, 明日, 謂左右曰, 國事, 大臣不可不與聞, 與旽議, 罷之."

13) 『고려사』 권7 문종 10년 12월.

14) 문종 23년(1059) 5월에는 왕이 長源亭 연못에서 瑞文石을 얻어 신하들에게 이에 대한 노래와 시를 짓게 했다. 『고려사』 권8 문종 23년 5월 경진(15일). 그 내용은 왕실연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또 숙종은 장원정에서 德音을 반포했다. 『고려사』 권12 숙종 9년 9월 을해(5일).

15)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왕경개성부 정주 장원정.

16) 의종의 남경 순행은 『고려사』 권17 의종 4년 9월 정축(4일) 및 갑오(21일), 서경 순행은 같은 책 권18 의종 22년 3월 정축(15일); 을유(23일); 4월 기해(8일); 권19 의종 23년 3월 을축(9일); 을해(19일) 참조. 한편 의종 8년(1154) 9월에는 서경에 重興寺를 창건했다. 『고려사』 권18 의종 8년 9월.

연기를 위해 또 다른 길지가 적극 모색되었다.[17] 의종 12년(1158) 9월에는 白州 兎山 半月岡에 별궁인 重興闕을 짓고, 전각의 이름을 大化殿이라했다. 이곳에 궁궐을 지으면 7년 안에 북쪽 오랑캐[北虜]를 병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태사감후 劉元度의 주청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중흥궐 입지에 대해 당시 두 가지 의견이 대립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왕명으로 그곳을 상지했던 평장사 崔允儀(1102-1162)는 "산세가 모여들고 강물도 순조로워 궁궐을 지을 만하다"고 보고했다.[18] 하지만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術者는 그 지형을 도선이 말한 庚方의 客虎가 머리를 들고 엄습하는 형세에 비유하며 중흥궐 창건으로 危亡之患이 있을까 두렵다"는 의견을 냈다.[19] 토산 반월강에 대한 도참가들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의종은 공사 2개월만에 중흥궐을 완공하고 그곳에 행차하여 왕실연기업을 실행했다.[20] 그런데 중흥궐 입지였던 토산의 반월강은 20여년 전 자연이변이 있었던 토산 서남방 지역과 같은 곳으로 비정된다. 중흥궐의 입지인 토산 반월강이 경방(正西에서 남으로 15도 안의 방향)에 위치했다는 『고려사』 기록과[21] 자연이변이 발생한 토산 서남방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인종 8년(1130) 토산 서남방에서는 땅속에서 솟아오른 불이 초목을 태우고 돌과 모래·진흙조차 태워버린 이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솟은 불은 6월 하순부터 3개월 넘게 지속되었고, 그 범위는 동서 길이가 1,320척(약 400m), 남북 길이가 3,360척(약 1km) 정도였다는 점에서 넓은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22] 결국 의종 12년의 배주 중흥궐 입지 결정에는 인종 8년에 있었던 자연이변현상에 대한 해석이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입지에 대한 찬반론에도 불구하고 왕실 중흥을 위한 연기업을 추진한 것은 묘청 난 이후 왕조

17) 김성환, 「고려시대 중고의 인식과 도참」, 『사학연구』 제61집, 한국사학회, 2000, 61-88면.
18) 『고려사』 권18 의종 12년 8월 갑인(27일).
19) 『고려사』 권18 의종 12년 9월 경신(4일).
20) 의종은 12년 10월 배주의 重興闕에 입주하여 大化殿에서 하례를 받았는데, 온 천지가 어두워지고 바람이 크게 불어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이변이 발생했고, 액막이 기도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고려사』 권18 의종 12년 10월 을묘(29일); 병진(30일); 정사.
21) 『고려사』 권18 의종 12년 9월 경신(4일).
22) 『고려사』 권53 지7 오행1 화 화재 인종 8년 11월 경자(1일).

지맥의 뿌리가 되고 대업을 萬代에 전할 최대 길지였던 서경에[23] 대한 관심을 개경 인근의 다른 곳에서 찾아야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중흥궐의 입지로 토산 반월강에 대한 태사감후 류원도와 평장사 최윤의의 적극적인 추진 건의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고려사』에서는 의종의 이궁・별궁 건설 및 행차와 관련한 기록이 빈번하게 확인된다. 궁궐 동쪽의 壽德宮,[24] 시중 王冲의 집을 개조한 安昌宮, 전 참정 金正純의 집을 개조한 靜和宮, 평장사 庾弼의 집을 개조한 連昌宮, 추밀원부사 金巨公의 집을 개조한 瑞豊宮,[25] 霍井洞 이궁[26]・楊堤洞 이궁[27]・奉香里 이궁,[28] 영은관을 개조한 館北 별궁[29]・시랑 金敦時의 집을 개조한 星北洞 별궁[30] 등이다. 의종의 이궁・별궁 행차는 陰陽祕祝說에 대한 지나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매번 행차할 때마다 행재소에 승려와 도사 수백 명을 모아 놓고 齋醮를 열었다.[31] 나라에 닥칠 재앙을 물리칠 방법으로 오래된 사찰[古寺]을 수리해야 한다는 榮儀의 건의에 따라 백관을 거느리고 海安寺에 가서 풍수를 살펴보기도 했다.[32] 또 鄭諴의 집을 慶明宮으로 삼았는데, 음양가가 그 터를 "개가 머리를 들고 주인을 향해 짖는 형세여서 왕이 거처할 곳이 못 된다"고 반대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33]

이와 비교하여 무신집권기의 왕실연기업과 관련한 조치들은 미미하게 확

23) 『고려사』 권2 태조 26년 4월 訓要 중 제5조.
24) 壽德宮은 의종 11년 "闕東에 새로 翼闕을 일으키면 능히 基業을 연장할 수 있다"는 卜者 榮儀(?-1170)의 말에 따라 翼陽侯(후에 明宗)의 第宅을 빼앗아 창건했다. 『고려사』 권18 의종 4월 병신(1일); 권123 열전 36 폐행 榮儀.
25) 『고려사』 권18 의종 11년 4월 병신(1일).
26) 『고려사』 권18 의종 14년 8월 계유(24일).
27) 『고려사』 권19 의종 23년 1월 을유(28일).
28) 『고려사』 권19 의종 23년 1월 정해(30일).
29) 『고려사』 권18 의종 20년 4월 갑오(21일).
30) 『고려사』 권18 의종 20년 10월 임진(22일).
31) 여기에 소비되는 재물을 감당하지 못해 內帑庫가 비게 되었고, 또 개인 집을 빼앗아 별궁으로 삼고 빼앗은 재물인 別貢을 관리하는 환관들의 폐단이 매우 심해 이를 막기 위해 이궁・별궁 행차를 중지하라는 간관과 어사대의 상소가 있었다. 『고려사』 권18 의종 16년 3월 병인(20일); 권19 의종 23년 7월 신유(7일).
32) 『고려사』 권18 의종 11년 4월 갑자(29일).
33) 『고려사』 권18 의종 11년 12월 계축(21일).

인된다. 그 배경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고려사』 기록에서의 미비를 들 수 있다. 『고려사』에서 무신집권기의 기록은 매우 소략하다. 그 원인은 왕권이 미약하여 국왕 중심의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일반적인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는 무신집권자의 전횡 때문에 미약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왕실연기업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무신집권자들이 왕위 교체 등을 좌지우지했더라도, 국왕 중심의 왕조 질서를 일정하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왕실연기업은 일정부분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이 미약하나마 확인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A-1. 三蘇造成都監【명종 4년(1174) 制書를 내려 左蘇 白岳山과 右蘇 白馬山, 北蘇 箕達山에 延基宮闕造成官을 설치했다. 禑王 4년(1378) 遷都할 것을 의논했는데, 國史에 "三蘇에 궁궐을 창건해야 한다"라는 글귀가 있었으므로 삼소조성도감을 설치했다】[34]

명종 때 왕실연기업으로 확인되는 것은 자료 A-1 三蘇의 조성이다.[35] 명종 4년(1174) 5월 명종은 좌소 백악산, 우소 백마산, 북소 기달산에 궁궐을 조영하고자 연기궁궐조성관의 설치를 명했다. 14세기 후반 우왕 때 삼소조성도감을 중심으로 추진된 창궐 작업이 『道詵密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그 근거는 도참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우소 백마산은 경기지역인 貞州,[36] 북소 기달산은 협계로[37] 비정된다. 우소 백마산에서는 명종이 아들이 없는 태자의 후사를 기도하는 禖祭를 설행한 바 있다.[38]

34)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제사도감각색; 『고려사절요』 권12 명종 4년 5월. "制, 左蘇白岳山, 右蘇白馬山, 北蘇箕達山, 置延基宮闕造成官."

35) 三蘇의 기능에 대해서는 공민왕 때의 사실이지만 李穡의 시가 참고된다. 李穡, 「曉吟」, 『목은시고』 권10. "[二] 蘿圖曾闢國, 天錄可延基. 周召猶從卜, 重黎有所司. 三蘇迷所在, 百世竟難知. 可惜先朝意, 江山木落時."; 「早起」, 『목은시고』 권10. "[二] 三蘇四室勢連綿, 陟巘胥原到日邊. 智異山王初授術, 高麗國祖誕膺天. 水流入海龍應吐, 嶺峻盤空鳳欲騫. 産得吉祥扶社稷, 蘿圖億載又千年."

36)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왕경개성부 정주. "貞州, 本高句麗貞州, (…) 有白馬山・長源亭【道詵松岳明堂記云, 西江邊, 有君子御馬明堂之地, 自太祖統一, 丙申之歲, 至百二十年, 就此創構, 國業延長. 文宗命太史令金宗允等, 相地, 構之於西江餠岳南】(…) 重房堤【稱重房裨補, 每春秋, 班主率府兵修築.】"

37)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서해도 곡주 협계현. "俠溪縣, 本高句麗水谷城縣, (…) 有北蘇宮闕舊基【北蘇, 卽縣之箕達山. 辛禑時, 據道詵密記, 遣權仲和等, 審得之, 與左蘇白岳山・右蘇白馬山 爲三蘇.】"

또 일찍부터 왕실연기업과 관련하여 장원정이 건립・운영되었고, 무신정권의 연기업을 위해 후술할 重房堤가 수축되었다. 반면에 북소 기달산은 공민왕과 우왕 때 삼소에 궁궐 조영과 천도를 추진하면서 이를 담당할 관청인 三蘇造成都監과 관련하여 확인될 뿐, 명종 이후 그 기능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명종 때 조성된 궁궐 규모는 108칸으로, 그 터가 우왕 때까지 보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9]

그런데 좌소 백악산과 관련해서는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고려사』에서 백악은 고종 4년(1217)과 15년에 新闕 또는 가궐이 조영된 백악,[40] 고종 21년(1234) 아사달로 비정된 옛 양주 땅,[41] 『삼국유사』 찬자인 일연에게 백악산아사달의 한 곳으로 비정된 弓(方)忽山 또는 今彌達인 구월산,[42] 공민왕 때 천도할 곳으로 비정된 임진현의 백악,[43] 우왕 4년(1378) 12월 천도를 위해 左蘇造成都監이 설치된[44] 양주의 檜巖[45] 등이 있다. 고려 왕조에서 좌소가 지니는 의미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왕실 출발지를 상징하고 있어 도참설의 중심이었다. 『삼국유사』의 고조선 도읍인 阿斯達에 관한 비정 중에는 배주에 있는 백악이 포함되어 있다.[46] 이곳은 의종 때 중흥궐이 창건

38) 『고려사』 권20 명종 15년 5월 병술(4일).

39)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4년 11월. 하정룡은 명종 4년 三蘇에서의 延基宮闕 조성을 준비에 그치고 실제로 궁궐이 창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河廷龍, 『『三國遺事』 史料批判』, 2005, 285면. 하지만 『고려사』 기록에서 확인되듯이 이때 삼소에서의 궁궐 조성은 이루어졌다.

40) 『고려사』 권22 고종 4년 12월 경술(7일); 15년 12월 갑자(25일).

41) 『고려사』 권23 고종 21년 7월 갑자(27일).

42)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왕검조선].

43) 『고려사』 권39 공민왕 9년 7월 을묘(1일); 9년 7월 신미(17일).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좌소 백악을 장단도호부의 백악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2 경기 장단도호부.

44)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4년 12월. "置左蘇造成都監. 時議欲遷都, 國史有左蘇白岳山・右蘇白馬山・北蘇箕達山等三所, 創建宮闕之文故, 有是役." 여기서 國史는 명종 때 三蘇의 延基宮闕造成官 설치를 기록한 『명종실록』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우왕 4-5년 三蘇造成都監을 설치하여 궁궐 조성작업과 천도가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나, 왜구의 구략, 장마와 가뭄, 흉년 등 때문에 중지되었다.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5년 1월 및 2월.

45)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5년 10월. "三司左使權仲和, 門下評理曹敏修相宅于檜巖, 以書雲觀言, 道詵所謂左蘇卽此地故也." 양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종 21년 좌소 아사달로 비정된 바 있는데, 후대에는 양주의 檜巖으로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46)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왕검조선]. "魏書云, 乃徃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經云無葉山, 亦云白岳, 在白州地, 或云在開城東, 今白岳宮是],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김성환, 『高麗時代의 檀君傳

된 토산 반월강으로 추측된다.[47] 즉 명종 때 왕실연기를 위한 궁궐 조성은 무신집정자의 일정한 영향 아래 개경 인근의 경기지역인 좌소 백악산은 배주, 우소 백마산은 정주, 북소 기달산은 협계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무신들은 불안정한 정권 유지를 위해[48] 重房을 중심으로 문신들을 경계하며 숙청을 진행했다. 명종 3년(1173) 9월에는 전왕의 복위를 도모한 金甫當 등을 처형하면서 거의 모든 문신들을 살해했으며, 10월에는 전왕을 시해했다.[49] 명종 5년 趙位寵의 반란이 있었다. 11월에는 南賊과 반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都校丞 金允升 등 7명이 섬으로 유배되었고, 병부상서 李允修가 거제현령으로 좌천되었다.[5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이·망소이는 물론 남적의 활동은 지속되었고, 동북 양계에서도 반란이 거듭되었다. 명종 9년 12월에는 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떠돌자 크게 두려워한 중방에서는 禁軍에게 칼을 뽑아든 채 주위를 경비하게 했다.[51] 명종 10년(1180) 11월에는 중방 동쪽 바로 옆에 위치한 강안전 嚮福門의 음이 '降服'과 비슷한 까닭에 문신들이 무신들을 누르려는 의도라고 하여 그 이름을 중방의 '重'자를 써서 '重禧門'으로 고친 일이 있었다.[52] 또 12월에는 海安寺에 봉안했던 의종 초상을 宣孝寺로 옮기고 그곳을 중방의 願堂으로 삼았는데, 그 위치가 무반의 방위인 서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53] 명종 16년 4월에는 궁궐 동쪽에 麗景門을 완공하면서 동문이 서문보다 높아지면 文이 武를 누를 것을 걱정한 무신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그 높이와 너비를 서쪽의 向成門과 같게 했

承과 認識』, 2002, 177-185면.

47)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서해도 안서대도호부 해주 배주. "本高句麗刀獵縣【一云 雉嶽城】, (…) 毅宗十二年, 創兎山重興闕, 陞知開興府事, 後復舊名, 來屬. (…)"

48) 명종 원년(1171) 10월 궁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의방 형제 등은 변란을 겁내 궐문을 닫아걸어 불 끄러 오는 사람을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아 궁궐이 모두 타버렸다. 『고려사』 권19 명종 원년 10월 임자(11일).

49) 『고려사』 권19 명종 3년 9월 계묘(13일); 10월 경신(1일).

50) 『고려사』 권19 명종 5년 11월 임자(5일).

51) 『고려사』 권20 명종 9년 12월 임자(29일).

52) 『고려사』 권20 명종 10년 11월 임자(4일).

53) 『고려사』 권29 명종 11년 12월 임자(10일). 한편 해안사는 의종 11년(1157) 국가에 닥칠 재앙을 물리칠 裨補處로 기능했다. 『고려사』 권18 의종 11년 4월 갑자(29일). "榮儀奏曰, 來歲, 國有災, 宜修古寺, 以禳之, 王率百官, 幸海安寺, 相風水."

다.[54] 또 명종 27년 2월에는 어떤 사람이 밤에 궁궐로 들어와 利賓門 밖의 서쪽 회랑기둥에 수십 개의 구멍을 뚫는 일이 발생했는데, 무인들 사이에서 동반이 서반을 해하려는 짓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55]

무신들의 권세에 국왕과 문신들은 나약하기 그지없었고,[56] 결국 崔忠獻(1149-1219) 형제는 명종의 폐위를 하늘에 고하는 醮齋까지 설행하여[57] 국왕의 교체가 전적으로 무신집정자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려사』에서는 "權臣이 잇달아 국권을 잡아도 왕실은 망하지 않았으나, 거의 백년 동안 冠 위에 달아놓은 구슬처럼 나라가 위태로웠다"고 평했다.[58] 최충헌 집권 이후 권력의 중심이 교정도감으로 옮겨질 때까지 중방은 무신들의 강력한 권력기관이었다. 따라서 중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신 견제를 위한 여러 조치들은 일종의 중방에 대한 연기비보의 성격을 가진다. 문신들의 運氣를 누름으로서 무신들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유사한 조치들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신종 원년(1198) 3월 무관의 방위인 대궐 서쪽의 민가에 방앗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건의가 중방에서 있었다.[59] 희종 3년(1207) 정월에는 겨울부터 산 서쪽의 고위관리들이 많이 죽는 원인을 동반의 저주로 지목한 무반들의 요청으로 중방과 將軍房에서 기양도량을 차렸다.[60]

> A-2. 李義旼의 沙堤를 헐었다. 앞서 [이]의민이 駱駝橋부터 猪橋까지 제언을 쌓고 제언을 끼고 버드나무를 심었는데, 사람들이 감히 비난하지 못하고 '新道宰相'이라고 불렀다. 후에 동남지방에서 도적이 크게 일어나고 또 노비들이 반역을 모의하자 術家들이 이를 지목하여 이야기했기 때문에 헐어버렸다.[61]

54) 『고려사』 권20 명종 16년 4월 정묘(20일).
55) 『고려사』 권20 명종 27년 2월 임자(8일).
56) 명종 2년 6월 좌승선 李俊儀(?-1174)의 지방관 증원에 대한 전횡이 있었는데, 국왕조차 그 시비를 논하지 못했다. 『고려사』 권19 명종 2년 6월 임술(25일).
57) 『고려사』 권20 명종 27년 9월 갑인(14일).
58) 『고려사』 권20 명종 史臣贊.
59) 『고려사』 권21 신종 원년 3월 을축(28일).
60) 『고려사』 권21 희종 3년 정월. 한편 희종이 崔瑀의 집인 梨坂(宮)으로 移御했다가 돌아온 기록이 확인되는데, 이 역시 연기업을 배경으로 전개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사』 권21 희종 4년 2월 병인(26일); 3월 갑술(5일).
61) 『고려사절요』 권14 신종 원년 5월.

A-3-1). 山川裨補都監【신종 원년에 재추 및 중방・최충헌 등이 術士를 모아 국내 산천의 보호를 받아 延基할 일을 의논하고 마침내 都監을 설치했다】[62]

A-3-2). 산천비보도감을 설치했다. 최충헌이 재추・중방 및 술사를 모아 국내의 산천을 裨補하여 延基할 일을 의논하고 마침내 이를 설치했다.[63]

A-4-1). 重房堤【重房裨補라고 한다. 매년 봄가을로 班主가 府兵을 이끌고 수축했다】[64]

A-4-2). 중방제【郡 남쪽 4리에 있는데, 길이 8리, 너비 3리이다. 남북의 水門을 열어 논 2백여 결에 물을 댄다. 고려 때에는 重房裨補라 하여 매년 봄가을에 班主가 府兵을 거느리고 수축했다】[65]

자료 A-2에서 沙堤는 李義旼 정권의 연기비보를 위해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대승에 이어 집권한 이의민은 집권 후 駱駝橋에서 猪橋까지 이르는 길에 제언을 쌓고 버드나무를 심었다. 비록 그 행위에 대해 新道宰相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의민 측 입장에서는 민생을 고려한 儲水를 위한 것이었을 것이고, 정권의 延基를 바라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충헌 집권 후 경상도 지역과 개경 주변에서 도적이 흥기하고 노비가 반란을 일으켜 그 비보책은 오히려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자료 A-3은 신종 원년(1198)에 산천비보도감의[66] 설치를 확인하는 기록이다. 자료 A-3-1)은 그 주체가 재추와 중방・최충헌이지만, 자료 A-3-2)는 주체가 당시 무신집정자였던 최충헌으로 밝혀져 있다. 전자는 왕실의 입장에서, 후자는 최충헌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사』에서는 "신종은 최충헌이 세운 왕으로, 사람의 생사와 관리의 임명 등이 최충헌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왕은 신하와 백성의 위에 있는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신종을 평했다.[67] 이를 참고할 때, 후자의 기록이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최

62)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제사도감각색.
63) 『고려사절요』 권14 신종 원년 정월.
64)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왕경개성부 정주.
65)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 해풍군.
66) 이재범, 앞의 글.
67) 『고려사』 권21 신종 史臣贊.

충헌은 재추・중방・술사 등을 모아 국내 산천을 裨補하여 延基할 일을 의논하기 위해 산천비보도감을 설치했는데, 그 실상은 왕실연기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신종을 꾀어 자신의 정권연기를 비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짐작된다.

重房堤 설치(자료 A-4)도 최충헌 정권의 연기비보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중방제는 태조 이전부터 왕실과 연고가 깊은 정주에 조성되었는데, 그곳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원정 건립과 운용, 명종 때 삼소 중에서 우소 백마산으로 비정되어 궁궐이 조영된 길지였다. 정주 남쪽 지역에는 길이 8리, 너비 3리에 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제언이 설치되어 매년 봄가을 중방 班主였던 응양군상장군이 府兵을 이끌고 제언을 수축하여 중방의 연기비보책을 설행했다. 매년 정례적인 제언 수축을 통해 민생을 살펴 무신정권의 연기를 기원한 것인데, 그 대상에서 왕실이 제외되어 있음은 주목된다. 즉 명종 이후 전개된 다양한 연기업들은 무신집정자를 중심으로 정권 안녕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정이 국왕이 아닌 무신집정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상황을 반영한다.

3. 강화 천도 이전의 연기업과 左蘇 阿思達

문신과의 관계에서 무신이 관련된 건물・관청의 地氣를 비보하는 방법은 고종[68] 초기에도 지속되었다. 동반과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힘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고종 2년(1215) 7월 무신들의 기운을 보존하기 위해 상약국・상의국・예빈성 등의 건물 40여 채를 헐고 중방을 옮겨지었다. "궁궐 서쪽에 있는 상약국에서 항상 약방아를 찧어 산 서쪽의 왕성한 기운이 손상될까 우려된다"는 풍문에 따른 것이었다.[69] 그런데 이듬해 8월부터 시작된 거란유종의 침략이 서경을 거쳐 12월에 황주를 구략하고, 4년 정월에는 염주・해주 등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런 가운데 거란군 3만여 명이 쳐들어와 성책을 불태웠다는 정주분도장군 朴儒의 급보는[70] 중방을 중심으로 한 서반의 연기업

68) 윤용혁, 「무인정권, 그리고 전란 속의 왕권—고려 고종(1192-1259)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제12집, 한국인물사연구회, 2009, 105-140면.
69) 『고려사』 권22 고종 2년 7월.
70) 『고려사』 권22 고종 4년 2월 무오(11일).

에 전환을 가져오게 했다. 위기감을 가진 최씨정권은 왕실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왕실 또한 대외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무신에게 절대적으로 기대야했다. 이런 상황변화가 왕실과 무신 사이의 정상적인 군신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선 시기의 무신집정자들과 비교하여 최충헌은 전란 정국으로 빠져드는 대내외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왕실과 일정부분 관계개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란유종이 개경 인근까지 침입하는 상황에서 왕실은 그 상징들의 보호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었다. 고종 4년 3월에 태묘의 神主를 太常府로 옮기고, 顯陵에 모셔져 있는 태조의 관[梓宮]을 봉은사로 옮겼다.[71] 창릉에서 세조의 관을 봉은사에 옮기고, 선왕인 강종의 능인 후릉도 옮기고자 改葬厚陵都監을 설치했다.[72] 거란유종이 우봉현을 침구하고 임강・장단으로 향하자 숭인문・홍인문 밖에서 그들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종은 竹坂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 B. 왕이 竹反宮[竹坂宮의 오기이다]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이 궁궐은 최충헌이 지은 것이다. 이때 술사가 말하기를 "松山[송악산]의 王氣가 거의 다했으니 마땅히 별궁으로 옮겨 이를 가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이를 따랐다.[73]

당시 도참에서는 거란유종의 구략이 개경에 가까이 이르게 된 까닭을 개경의 지기쇠왕설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松山은 고려왕실의 근거지로 이곳의 王氣가 다했음을 직접 거론한 것은 상황의 절박함은 물론,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비보 장소는 다름 아닌 최충헌의 별궁인 竹坂宮이었다.[74] 왕실의 존속 여부가 전적으로 최씨정권의 의중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충헌의 입장에서도 거란군이 거의 개경까지 구

71) 『고려사』 권22 고종 4년 3월 병술(9일).
72) 『고려사』 권22 고종 4년 3월 무자(11일).
73) 『고려사』 권22 고종 4년 4월 기유(3일).
74) 고종 6년(1219) 趙冲이 거란군을 격파하고 개선했을 때, 최충헌은 그 공을 시기하여 迎迓禮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근거지이자 별궁인 竹坂宮에서 장수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이때 조충은 西京에 머무르고자 했으나, 최충헌은 조충이 혹 변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빨리 돌아오게 하였다.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 최충헌;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6년 3월.

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런 점에서 최충헌은 국왕이 죽판궁으로 거처를 옮길 것을 요청했고, 고종이 이를 수용하여 최충헌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 결국 쇠퇴한 송산의 왕기를 회복할 방법은 최충헌의 권력 아래에서 왕실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최충헌 역시 자신의 근거지를 왕실비보지로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왕실이 자신에게 더욱 종속되도록 하였다.

7월에는 興王都監을 설치했고,[75] 12월에는 술사 李知識의 요청에 따라 최충헌은 다양한 연기업을 추진했다. 그 목적은 당연히 거란유종의 침입을 기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도참에 따라 창건된 5백여 사찰 중에 하나였을 乾元寺를 부수어 액막이를 했고,[76] 백악에 새 궁궐을 짓기 시작했으며,[77] 고종의 거처를 신인종 계통의 賢聖寺로 옮겼다.[78] 현성사로의 移御를 요청한 주체가 단지 술사로 밝혀져 있고, 12월에 실행된 연기업 3건 모두 술사 이지식의 요청을 최충헌이 수용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최충헌의 주도아래 추진된 것이 확실하다. 또 그 목적은 막연히 연기로 밝혀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왕실의 연기, 나아가 자신의 정권에 대한 연기를 구하려는 것이었다. 고종이 현성사로 이어하기 열흘 전에 그곳에서 직접 文豆婁道場을 개최했는데,[79] 역시 거란군을 기양하려는 조치였다.

건원사를 혁파한 것은 그곳이 문치주의를 중심으로 유교적 정치이념을 표방한 성종의 眞殿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80] 항상 문신과의 관계를 경계하며 우위임을 확인하고자 했던 무신정권의 입장에서 건원사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란유종의 침입을 액막이하는 조치로 폐사를 단행했던 것으로 추측된다.[81] 현성사 역시 왕실사찰로 명종 6년(1176) 5월 국왕이 帝釋齋

75) 『고려사』 권22 고종 4년 7월 정축(2일).
76) 『고려사』 권22 고종 4년 12월 정미(4일).
77) 『고려사』 권22 고종 4년 12월 경술(7일).
78) 『고려사』 권22 고종 4년 12월 임신(29일).
79) 『고려사』 권22 고종 4년 12월 임술(19일).
80) 『고려사』 권83 지37 병3 위숙군. "(…)・乾元寺眞殿 散職將相各二.";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4년 12월. "崔忠獻信用術人李知識之言, 壞乾元寺以禳兵, 移成宗神御于開國寺, 又營新闕于白岳."
81) 건원사는 고종 12년 9월 복원되었다. 『고려사』 권22 고종 12년 9월 을해(17일).

를 개설한 바 있는데, 의종의 옛 휘인 '晛'과 '現聖'의 '現'이 비슷하여 피혐을 위해 사찰 이름을 '賢聖'으로 고쳤다.[82] 최충헌 형제가 명종을 폐립했을 때는 바람이 크게 불어 많은 나무들이 뿌리 채 뽑히는 이변이 발생하기도 했다.[83] 거란 침입을 기양하려고 4월과 12월, 2차례에 걸친 문두루도량이 설행되었다.[84] 또 고종 5년에는 5월, 9월, 10월 3차례에 걸친 국왕의 현성사 행차가 확인되는데,[85] 왕실연기를 위한 비보책으로 제석재 또는 문두루도량이 개최되었을 것이다. 백악에도 신궐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의종 때 중흥궐이 건립된 배주 토산의 반월강으로 명종 때 좌소 백악산으로 비정된 곳이었다. 여전히 백악이 왕실의 延基處로 기능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즉 고종 초 거란 침입으로 조치된 왕실연기업은 최충헌이 지은 별궁인 죽판궁과 현성사로의 이어, 백악에서의 이궁 창궐, 성종의 진전사원인 건원사의 폐치 등이었다.

거란유종의 침입을 힘겹게 버텨냈지만, 고려의 북방은 여전히 안정되지 못했다. 『고려사』에서는 고종 6년 정월 거란유종과의 전투가 끝난 이후 7년 10월부터 46년(1259) 2월까지 매년 한두 번씩, 모두 35차례에 걸쳐 국왕의 현성사 행차 기록이 확인된다. 그 목적 역시 외세 침입을 기양하려는 연기책으로 추측되는데, 대상은 동진・몽고 등으로 바뀌었다.[86] 또 최충헌이 사망한 이후 왕실연기를 위한 죽판궁의 기능은 梨峴에 위치한 최우의 집으로 바뀌었다.[87] 고종 8년 8-9월 몽고 사신 저고여의 입국 여부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88] 11월에는 이궁으로 거처를 옮겼는데,[89] 이 또한 최우의 私第로 추측된다. 그런 가운데 고종 15년

82) 『고려사』 권19 명종 6년 5월 병오(2일).
83) 『고려사』 권20 명종 27년 9월 갑인(14일).
84) 『고려사』 권22 고종 4년 4월 계유(27일); 12월 임술(19일).
85) 『고려사』 권22 고종 5년 5월 기축(19일); 9월 을미(26일); 10월 갑자(8일).
86) 원종 때 역시 현성사는 왕실연기를 위한 장소로 기능했는데 몽고와 삼별초를 기양하려는 것이었으며, 원 간섭기에는 원나라 황제의 복을 기원하는 왕실사찰로 여전히 기능했다. 『고려사』 권27 원종 14년 4월 병오(24일). "幸賢聖寺, 集五教・兩宗僧徒, 設道場於男山宮, 以祈平賊."; 권28 충렬왕 원년 4월 기유(8일). "王及公主, 如賢聖寺, 爲帝祝釐."
87) 『고려사』 권22 고종 8년 10월 무오(8일).
88) 『고려사』 권22 고종 8년 8월 기미(8일); 갑자(13일); 9월 정해(6일) 참조.
89) 『고려사』 권22 고종 8년 11월 기해(19일).

(1228) 12월에는 앞서 서북면병마사를 역임해 북변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던 추밀원부사 李允諴을 시켜[90] 국왕의 衣帶를 백악 가궐로 옮겨 안치하게 했다.[91] 동진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비보책으로, 백악 가궐은 앞서 술사 이지식의 요청에 따라 신궐을 지었던 백악과 같은 곳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몽고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종 18년(1231) 이후 왕실연기를 위한 방안은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개경에 있던 權臣의 집으로 옮기거나, 의종 이후 왕실연기처로 인식되어 가궐이 조영되었던 백악으로의 어의대 봉안은 거의 효험을 보지 못했다. 특히 배주는 몽고군 침입의 경로이자 전투가 빈번하게 벌어졌던 곳으로, 더 이상 연기처로 기능할 수 없었다. 게다가 고종 19년 6월에 전격 단행된 강화 천도는 왕실연기를 위한 방법과 장소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천도 직전 국왕의 현성사 행차가 있었고,[92] 강도로 천도한 직후 현성사의 창건과 행차가[93]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졌는데, 몽고병을 기양하기 위한 연기책이 계속 설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고종 21년(1234) 7월에는 내시 李白全을 시켜 어의를 남경 가궐에 봉안했다. 扶踈山에서 갈라진 좌소를 阿思達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을 옛날 楊州 땅으로 비정한 어느 도참승의 말에 따른 것이다. 그 배경에는 "그곳에 궁궐을 짓고 국왕이 거처하면 國運이 8백 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에 있었다.[94] 이때는 궁궐・사원 건립 등을 중심으로 2년에 걸쳐 추진한 江都의 기반 구축이 일단락된 시기로, 이제 그 관심이 왕실연기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에는 "어의를 3월부터 5월까지는[6월의 착오로 보인다] 남경 궁

90)『고려사』권22 고종 12년 7월 무진(19일).
91)『고려사』권22 고종 15년 12월 갑자(25일). 국왕의 의대를 봉안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親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안으로 실행되었다. 숙종은 남경에 행차하면서 御駕가 常慈院에 머물자 시어사 崔詡를 보내 御衣와 차・향을 가지고 삼각산 승가굴에서 기우했다.『고려사』권12 숙종 9년 8월 병오(5일). 인종 또한 묘청의 요청으로 문공인・이중부에게 御衣를 받들고 서경으로 가서 法事를 행하게 했다.『고려사』권127 열전40 반역 묘청.
92)『고려사』권22 고종 19년 3월 갑오(13일).
93)『고려사』권22 고종 22년 9월 병자(16일).
94)『고려사』권22 고종 21년 7월 갑자(27일).

궐에 봉안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舊京 강안전으로,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다시 남경에 두는 식으로 해마다 되풀이하라"는 조서를 내렸다.[95] 도참승이 제시한 연기업의 핵심은 어의를 3-6월은 남경 궁궐, 7-10월은 개경 궁궐, 11월-2월은 다시 남경 궁궐로 이안하면 국운이 8백년 延基된다는 것이었다. 국운의 8백년 연기는 8백년 주나라의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종 2년(983) 『虞書』 12牧을 본받아 지방제도를 시행하면서 주나라의 8백년 왕업이 고려왕조에도 지속될 것을 소원했던 성종의 조서에서 확인된다.[96] 고려왕실 연기의 지향은 주나라의 태평성대에 있었다.

그런데 도참에서는 어느 때부터인가 부소산 좌소를 아사달로 이해하고 있었다. 아사달은 단군전승에서 고조선의 천도지이자 단군이 산신으로 좌정한 곳이었다.[97] 그리고 부소산 좌소는 고려왕실의 先系로 성골장군을 자칭하던 호경이 백두산으로부터 유력하다가 정착한 부소산 左谷과[98] 관련이 있다. 또 부소산 좌곡은 고려왕실의 永業地였다. 강충은 "부소산 북쪽에 위치한 부소군을 남쪽으로 옮겨 소나무를 심고 바위가 드러나지 않게 하면 삼한을 통합할 인물을 낳을 것"이라는 신라 팔원의 권유로 거처를 남쪽으로 옮기고 소나무를 심어 郡의 이름을 松嶽郡으로 고치는 한편, 부소산 북쪽 마하갑의 집은 永業之地로 삼아 왕래하였다고 한다.[99] 즉 그곳은 고려왕실의 출발지였다. 이후 부소산은 도참에서 진정한 길지로 여겨졌는데, 의종이 仁智齋에 거둥하여 지은 春帖子에서도[100] 확인된다.[101]

---

95) 『고려사』 권22 고종 22년 2월.

96) 『고려사』 권3 성종 2년 2월 무자(1일). "始置十二牧. 詔曰, 天高爲大, 分象緯以著明, 地厚無疆, 列山川而播氣, 庶望首天之類, 咸悉樂生, 足地之流, 無不遂性, 見一夫之冒罪, 則意甚泣辜, 聞百姓之居貧, 則情深責己, 雖身居宮禁, 而心遍蒸黎, 旰食宵衣, 每求啓沃, 聽卑視遠, 冀籍賢良, 爰憑方伯之功, 允協閭閻之望, 効虞書之十二牧, 延周祚之八百年."

97)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왕검조선].

98) 『고려사』 고려세계.

99) 『고려사』 고려세계.

100) 『고려사』 권18 의종 16년 12월 신묘(29일). "王御仁智齋, 親製春帖字云, '蕩蕩春光好, 欣欣物意新, 將修仁知德, 今得萬年春.' 又云, '夢裏明聞眞吉地, 扶蘇山下別神仙, 迎新納慶今朝日, 萬福攸同瑞氣連.' 王酷信術士, 改慶龍齋爲仁智, 開廣增飾, 日與嬖倖, 沈酣遊戲, 不恤國政, 諫官或請毁之, 王輒稱夢報, 以拒之, 故有是詩. 自是, 諫者乃止."

101) 고려 말에도 부소산은 여전히 도참과 관련한 吉地로 여겨졌다. 演福寺 승려였던 達孜는 참설로

이로 미루어 고종 21년 어의를 남경 가궐에 봉안시킨 조치는 단군전승에서 고조선의 도읍으로 알려진 아사달, 〈고려세계〉에서 왕실의 영업지로 전하는 부소산 좌곡과 관련한 전승이 교섭하여 8백년 태평성대를 이루어 왕실 중흥을 이루려는 새로운 도참설을 창출한 결과라고 보인다. 특히 빈번한 예는 아니지만, 부소산이 송악산의 이칭으로 사용되거나 국도였던 송악을 관칭했음을 염두에 둘 때,[102] 왕실영업지였던 부소산 좌곡이 고종 21년 도참에서의 좌소로 확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부소산 좌곡=왕실 영업지=좌소=아사달"이라는 도참설이 고종 21년 전후 왕실연기를 위해 유포되었다. 결국 『삼국유사』의 〈고조선[왕검조선]〉조에 전하는 도읍지 아사달은 고려왕실의 영업지이자 최대 길지로 인식되었던 부소산 좌소로 비정되고 있었다.[103] 한편 고종 21년 11월에는 개경 수창궁에 太祖神御를 봉안했다.[104] 수창궁의 태조신어가 강도 봉은사에 모셔진 太祖眞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105] 수창궁의 태조신어는 3개월 후인 고종 22년 2월에 남경 가궐로 이안되었

신돈에게 "절에 3개 연못과 9개 우물이 있는데 3개 연못이 맑아져 扶蘇山이 연못 중심에 비치면 왕과 신하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 태평에 이르고, 9개 우물은 9마리 용이 사는 곳이지만 막힌 지가 오래되어 뚫어야 한다"고 했다. 『고려사』 권132 열전45 반역 신돈. 연복사 문수회 참설의 중심에 부소산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창현, 「공민왕 중반 천도론과 三蘇 경영론」, 『서울과역사』 제106호, 서울역사편찬원, 2020, 207-263면 참조. 부소산은 민간에서도 명당으로 알려져 투장 등이 이루어졌는데, 공양왕 4년(1392) 홍주판관 李深이 사위인 사의 金柄와 외손자인 승려 玄悟에게 죽으면 扶蘇山의 穴에 묻어 달라고 유언한 사례에서 확인된다. 『고려사』 권46 공양왕 4년 3월 정미(26일).

102) 金時習, 「扶蘇山【卽松嶽】」, 『梅月堂詩集』 권9 遊關西錄.

103) 〈고려세계〉에서 부소산 左谷은 태조 왕건을 출생한 길지로 고려 전기까지 고려왕실의 永業地로 기능했다. 하지만 개경의 지기쇠왕설과 용손십이진설 등의 영향으로 부소산 좌곡은 재비정되어야했고, 그것은 삼경 경영론과 맞물려 三蘇 운영론으로 재정비되었다. 명종 4년(1174)의 左蘇 白岳山, 고종 4년(1217)과 15년(1228) 新闕, 가궐이 조영된 좌소 백악, 고종 21년 좌소 아사달로 비정된 옛 양주 땅 등은 그런 이해의 반영이었다. 특히 '蘇'가 蘇生, 甦生의 자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부소산 좌곡은 좌소로 재정비되었고, 그 위치는 어느 한 곳으로 특정되지 못하고 당대의 현실과 연동하는 도참설에 따라 다양하게 비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경에서 개경이 國都의 위상이었듯이 삼소에서 좌소는 으뜸이었고, 그것은 백악, 아사달과 연계되며 기능했다고 짐작된다.

104) 『고려사』 권23 고종 21년 11월 병신(1일).

105) 개경 봉은사에 모셔졌던 太祖眞은 세조와 태조의 梓宮을 강화로 이장한 고종 19년에 함께 강화로 이안되었다가 1년여 동안 참정 車倜(생몰년 미상)의 집을 봉은사로 수리한 후 고종 21년 2월의 연등회에 맞추어 이곳에 봉안된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사』 권23 고종 19년 12월; 고종 21년 2월 계미(14일). 이후 고종 21년 6월부터 고종은 2월 연등회와 6월 태조의 기신제 때 봉은사에 행차하여 태조진을 알현했다.

다.[106] 이것은 역시 도참에 근거하여 3-4개월을 단위로 어의를 남경과 개경에 교차 봉안하라는 조서와 관련이 있다. 개경과 남경은 부소산과 좌곡[좌소]의 관계로 도참에서 남경이 왕실의 지역범위로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수십 년 동안 몽고와의 전란이 지속되면서 왕실연기업은 개경의 수창궁 또는 강안전과 남경 가궐에 국왕이 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곳에 태조신어와 고종의 어의대를 교차로 봉안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의종 이후 왕실 연기처였던 좌소 백악[배주 토산 반월강]은 재설정되어야 했고, 연기업 역시 北虜의 병탄이나 그들의 침구를 기양하는 것에서 보다 확대되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삼소와 관련하여 운영되었던 삼경 중에 남경은 고려왕실의 영업지였던 좌소, 그리고 도참에서의 좌소 백악, 더 나아가 단군전승에서 고조선의 도읍지[길지]였던 백악산아사달과 융합되면서 좌소 아사달로 비정될 수 있었다. 그곳은 8백년의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고조선의 도읍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 수습책으로 몽고가 강도에서의 출륙과 고려국왕의 친조를 제시함으로서 고려에서는 이를 타개할 또 다른 연기업을 필요로 했다.

4. 白勝賢의 假闕 조영 건의와 三蘇

고종 38년(1251) 10월 몽고 사신은 고려국왕의 입조와 개경으로 환도를 요구하는 황제 조서를 고종에게 전달했다.[107] 국왕의 입조 요구에 대해 고려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대안으로 태자의 입조가 제시되었다.[108] 지속적인 출륙 요구에 대해서는 우소 백마산 궁궐터를 출륙 준비를 위해 건축한 것이라고 둘러댔다.[109] 고종 44년(1257) 7월 몽고군의 철군 조건으로 태

106) 『고려사』 권23 고종 22년 2월 임오(19일).

107) 『고려사』 권24 고종 38년 10월 무신(21일). 앞서도 몽고는 전쟁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고려국왕의 친조를 요구했다. 『고려사』 권23 고종 26년 4월; 8월. 북방왕조의 고려국왕 친조 요구는 거란의 2차 침입 이후인 현종 3년(1012)에 있었다. 『고려사』 권4 현종 3년 4월; 『요사』 권15 본기15 성종6. 그러나 고려는 국왕의 칭병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고려사』 권4 현종 3년 4월 갑자(28일).

108) 『고려사』 권24 고종 38년 10월 병진(29일).

109) 『고려사』 권24 고종 40년 9월 무인(3일). "遣大將軍高悅, 致書也窟大王曰, 小邦不敢遠忤聖旨, 已於昇天府白馬山下, 築城郭, 營宮室, 但東北界捕獺人, 是懼, 未得畢構出居, 今大軍入境, 國人驚駭, 罔知所措, 惟大王矜恤班師, 俾我東民, 悉皆按堵, 則當明年, 躬率臣僚, 出迎帝命, 若其虛實, 遣一二使价審之, 可知也."

자 王倎(후에 원종)의 몽고 입조가 결정되었다. 온 나라가 소란했으나, 왕실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절과 神祠에서 기도할 따름이었다.[110] 이런 와중에 고종 45년(1258) 3월 대사성 柳璥과 별장 金仁俊(金俊으로 개명) 등이 崔竩를 제거했다.[111] 의종 24년(1170) 이후 90여 년간 지속된 무신집권을 형식적으로 끊어내고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3일 후 고종은 처음 즉위하는 것처럼 강안전에서 백관들의 하례를 받았다.[112] 그리고 각 번의 도방·야별초·신의군·書房·殿前의 어가 호위로 왕륜사에 갔는데, 그 광경을 본 구경꾼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113] 한 달 후 고종은 바다를 건너 승천부의 궁궐로 가서 몽고 쟈릴타이車羅大가 사절로 보낸 波養 등을 접견했다.[114] 강화로 천도한 고종 19년(1232) 6월 이후 26년 만의 일이었는데, 출륙과 국왕 친조를 강압하던 몽고 요구에 대한 미봉책이었다.

몽고는 고려의 출륙과 항복을 받기 위해 강온 전략을 병행했다. 고종 45년 전반기만 하더라도 황해도 수안에 척후병을 보냈고, 평안도 가주와 곽주 등에 기병을 보내는 군사행동이 있었다.[115] 쟈릴타이는 波乎只를 강화로 들여보내 "출륙하여 항복한다면 한 마리의 닭이나 개조차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황제의 메시지도 전했다. 또 국왕과 태자가 서경으로 나와 항복하면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회유했다. 그렇지만 고려 입장에서 몽고의 제안은 믿을 수 없었고, 더구나 국왕과 태자가 모두 몽고 진영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고종은 "늙고 병들어 먼 길을 갈 수 없다"는 핑계로 영안공 王僖와 지중추원사 金寶鼎을 쟈릴타이 진지로 보냈다.[116] 쟈릴타이는 전략을 수정했다. 척후병을 서경 이남으로 보내 염주·배주·평주 등에서 군사적 압

110) 『고려사』 권24 고종 44년 7월 무자.
111) 『고려사』 권24 고종 45년 3월 병자(26일).
112) 『고려사』 권24 고종 45년 3월 기묘(29일).
113) 『고려사』 권24 고종 45년 4월 신묘(12일).
114) 『고려사』 권24 고종 45년 5월 갑인(5일). 이에 앞서 車羅大가 사자를 보내 고려국왕이 육지로 나왔는지 살피게 했다는 보고를 받은 고종은 4월 30일에 문무백관을 昇天府로 나가게 하고 저자를 옮기는 한편, 궁궐과 관료들의 집을 수리하게 했다. 『고려사』 권24 고종 45년 4월 기유(30일).
115) 『고려사』 권24 고종 45년 4월 신축(22일); 6월 기축(11일).
116) 『고려사』 권24 고종 45년 6월 병신(18일). 이때 영안공 王僖는 車羅大 진영으로, 지중추원사 金寶鼎은 余愁達 진영에 파견된 것으로 파악된다.

박을 가하는 한편,[117] 예쉬데르余愁達는 김보정을 돌려보내면서 국왕과 태자가 모두 출륙하여 항복하라는 당초 조건을 태자만으로 국한했다.[118]

몽고의 출륙과 항복 대상이 국왕 또는 국왕과 태자에서 태자로 조정됨에 따라 고려조정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었다. 그렇다고 위험 요소들이 모두 제거된 것이 아니었다. 고려 태자와 예쉬데르가 만날 장소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었고, 고려에서는 태자의 안전보장이 없이 태자를 몽고 진영에 들여보내는 모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고려 태자와 예쉬데르가 만날 장소를 고려에서는 백마산으로, 몽고에서는 猫串 강가로 제시하며 서로 안전 문제를 담보로 신경전을 펼쳤다.[119] 고려에서는 역관 康禧를 보내 사태를 엿본 후, 다시 원외랑 李祿綏 등을 보내 태자가 병들어 쾌차한 후에 찾아오겠다며 협상을 결렬시켰다.[120] 이에 예쉬데르는 군사행동의 재개로 위협했다.[121]

고려 태자의 출륙과 관련하여 양측의 신경전은 고종 45년 7월 이후 계속되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고려의 출륙을 압박하려는 몽고군은 개경에 진을 치고, 경기 지역인 승천부・교하・봉성・수안・동성 등에서 민간의 양과 말을 약탈하고,[122] 손돌목까지 진격하여 갑곶 건너편에 진을 치며 온 산야를 에워쌌다.[123] 이런 상황은 고종 46년(1259) 2월까지 지속되었다. 고종과 김준은 이 같은 난국을 도참에 기대어 연기업을 설행하여 타개하고자 했다. 그 중심에 풍수업을 하던 술사 白勝賢이 있었다.

C-1. 白勝賢은 風水를 업으로 삼던 사람이다. 고종 말에 낭장에 임명되었다. 왕이 江都에 있을 때 일찍이 왕업을 연장시킬 땅에 대해 묻자, 백승현이 아뢰기를 "원하옵건대 穴口寺에 행차하여 법화경 설법을 들으시고 또 三郎城에 궁궐을 새로 지어 그 영험을 시험해 보소서"라고 했다. 왕이 兩府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

117) 『고려사』 권24 고종 45년 6월 경자(22일); 갑진(26일). 고려는 이 때문에 서울[江華京]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118) 『고려사』 권24 고종 45년 6월 정미(29일).
119) 『고려사』 권24 고종 45년 7월 임자(5일).
120) 『고려사』 권24 고종 45년 7월 을묘(8일).
121) 『고려사』 권24 고종 45년 7월 무오(11일); 경신(13일).
122) 『고려사』 권24 고종 45년 8월 무오(6일).
123) 『고려사』 권24 고종 45년 9월 경오(24일).

여 백승현에게 景瑜 및 判司天事 安邦悅 등과 이해득실을 따져 보게 했다. 백승현이 여러 마리의 말에 道籙·佛書·陰陽書·圖讖書를 가득 싣고 와서 이곳저곳을 인용하며 궤변을 거침없이 늘어놓아 경유 등이 그 談鋒을 능히 꺾을 수 없었다. 양부에서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묻자 경유 등이 부득이하게 말하기를 "백승현의 말은 비록 믿을 수 없으나 일단 시험해보소서"라고 했다. 이에 명하여 三郎城과 神泥洞에 假闕을 짓게 했다.

C-2. 원종 5년(1264)에 몽고가 국왕에게 친히 入朝할 것을 요구하자 백승현이 또 金俊을 통해 "摩利山塹城에서 친히 醮禮를 지내고 또 삼랑성과 신니동에 가궐을 지어 친히 大佛頂五星道場을 개설하면 8월이 되기 전에 반드시 감응이 있어 친히 朝會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三韓이 변해 震旦이 되어[三韓變爲震旦] 큰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러 올 것입니다"라고 건의했다. 왕이 이를 믿고 백승현과 내시대장군 趙文柱, 국자좨주 金坵, 장군 宋松禮 등에게 가궐을 짓게 했다.

C-3-1). 예부시랑 金軌가 우복야 朴松庇에게 "穴口는 凶山인데, 백승현이 그곳을 大日王이 常住하는 곳이라 여기고 일찍이 고종께 아뢰어 혈구사를 짓고 국왕의 衣帶를 안치하게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고종께서 승하했습니다. 지금 또 근거없는 말을 함부로 만들어 가궐을 짓도록 주청하고 더하여 혈구사에서 친히 大日王道場을 개설하도록 청하니 그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公께서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했다. 박송비가 김준에게 그 말을 전했는데, 김준은 백승현의 말에 깊이 빠져 도리어 김궤를 처형하려다가 그만두었다.

C-3-2). 백승현이 또 아뢰기를 "도참에는 姬龍의 후손이 있어 重興한다는 말이 있으니 마땅히 주나라 康王의 諱인 '釗'자로 御押을 바꾸소서"라고 하여 왕이 그 말을 따랐다. 얼마 뒤 고구려왕이었던 釗가 비명횡사한 점을 꺼려 곧 옛 이름으로 고쳤다.[124]

자료 C는 고종 말 원종 초에 강도에서 추진된 왕실연기비보를 위한 대책과 시행과정을 보여준다. 연기업의 지역적 범위는 혈구사·삼랑성·신니동·마리산참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방안은 전통적인 방법인 이궁·가궐 창건과 어의대 봉안,[125] 법화경 법석과 대일왕도량·대불정오성도량 등 개최, 마리산

124) 『고려사』 권123 열전36 폐행 白勝賢. 『동국통감』에서는 자료 C-3-1)을 원종 5년 5월, 자료 C-3-2)는 원종 5년 6월로 파악하고 있다. 『동국통감』 권34 高麗紀 원종 5년 5월; 6월.

125) 혈구사에서의 가궐 창궐 사실은 "혈구사를 지어 御衣帶를 안치했다[作穴口寺, 以安御衣帶.]"는 자료 C-3에서 확인된다.

참성에서 親醮, 국왕 수결을 새긴 도장인 御押에 사용되는 諱의 개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연기업 장소와 방법으로 혈구사・삼랑성・신니동에서의 가궐 조영을 들고 있음은 명종 4년 추진된 三蘇에서의 가궐 조영과 비교할 수 있다. 즉 고종 말에 추진된 혈구사・삼랑성・신니동에서의 연기업은 강도 궁궐을 중심으로 한 삼소로 비정할 수 있다.[126] 이곳에서 가궐 조영이 적극 추진되었음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자료 C-2와 C-3에서의 어압 교체와 관련한 내용은 원종 전반기에 추진된 것이어서 검토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다.[127]

우선 고종 45-46년 왕실연기업의 전개에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한 백승현에 대해 검토한다. 그의 출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숙종 때 남경 건설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金謂磾, 인종 때 서경 천도를 적극 추진했던 묘청 등과 같이 그의 풍수학 기반은 도참설의 중추인 도선과의 연계성도 밝혀져 있지 못하다. 단지 풍수업을 했다고 하여 그 계보를 밝힐 단서는 전혀 없다. 그런데 도선은 고려왕실의 연기비보 풍수에서 정점에 위치해 있고, 그 위상은 태조의 유훈과 관련한 不動의 것이어서 백승현 역시 자신의 계보가 도선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내세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승현은 고종 말에 5품직인 낭장에 임명되었는데, 이 역시 풍수와 관련한 그의 명성을 배경으로 연기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출사 과정 또한 밝혀져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종과 오랜 친분이 있었을 개연성이고, 두 번째는 당시 실권자였던 김준과의 관계에서이다.

혈구는 고구려 때 강화의 지명으로, 혈구사는 강도에서 서쪽으로 10여 리 떨어져 있는 혈구산에 위치해 있었다.[128] 고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혈구사와 인연이 있었다. 고종은 6세 때인 명종 27년(1197)부터 19세 때인 희종

126) 혈구사-삼랑성-신니동으로 이어지는 연기업은 명종 4년 추진된 좌소 백악산-우소 백마산-북소 기달산의 三蘇에서 延基宮闕 조성과 비교할 수 있다. 물론 백승현이 조영을 주장한 혈구사・삼랑성・신니동 가궐이 三蘇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그 시초는 명종 때의 三蘇 운영론에서 비롯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고종 말의 연기업 중심에는 혈구사, 원종 초에는 삼랑성이 자리하고 있다.

127) 이에 대해서는 김성환, 「고려 원종의 摩利山塹城 親醮와 壇君」, 『민족문화논총』 제59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5, 3-36면.

128)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강화현;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2 경기 강화도호부 산천.

6년(1210)까지 약 13년 동안 강화에 유폐되어 있던 부친 강종을 모시고 스승 兪升旦과 함께 문수보살을 봉안한 혈구사를 찾곤 했다.[129]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고종이 鄭世臣을 혈구사에 보내 법화경과 大日經 법석을 연 것은 꿈에서 늙은 비구[老比丘]가 권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그런데 고종 꿈에 나타난 늙은 비구와 정세신이 혈구사에서 본 늙은 비구는 백승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130] 그렇다면 혈구사를 중심으로 고종과 백승현의 인연은 고종의 십대부터 시작하여 수십여 년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승현은 강도에서 혈구사를 중심으로 문수신앙을 펼치고 있었던 도참 관련 술사였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개연성은 백승현을 김준에게 천거한 제3의 인물에 대한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첫 번째 개연성을 상정할 때 당연히 국왕인 고종을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右邊持諭 白永貞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소위 무오정변에 참여하여 최의를 제거하는 데 공을 세우고, 또 최우의 외손인 장군 權守鈞의 사위였던 少卿 文璜의 김준 제거모의를 적발하여 위사보좌공신으로 책봉되었다.[131] 이런 백영정이 고종과의 오랜 인연이 있던 백승현을 김준에게 소개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어느 한쪽을 상정하기보다 상호 복합적인 관계에서 고종과 김준에게 작용했을 것이다.

자료 C-1에서와 같이 백승현이 연기업을 고종에게 건의한 것은 고종 45년(1258) 11-12월경이었다. 이때 김준은 최의 제거를 공모했던 류경도 누르고 정권을 오로지하여 정국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었다. 출륙과 태자 입조를 강요하는 몽고의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도 강도에서의 연기비보책은 필요했다. 몽고와의 군사적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고, 최의 제거 이후 김준 집권이라는 또 다른 불안정한 상황이었지만, 왕정복고를 이루었다는 일정한 분위기의 반전이 있었다. 개경으로 환도를 탐색하면서도 강도에서 국정운영까지 함께 고

129) 김창현, 「고려 江都의 문수신앙과 관음신앙」, 『한국중세사연구』 제23집, 한국중세사학회, 2007, 196-202면.

130) 김창현은 老比丘를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추정하였지만 백승현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같은 글, 197면.

131)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 최충헌 附 최의; 권130 열전43 반역 김준. 물론 백영정과 백승현의 관계를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같은 족속으로 백영정은 당시 江都에서 풍수업으로 명성을 얻은 백승현을 김준에게 천거했을 수 있다.

민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적극 모색되어야 했다. 이런 와중에 도참설을 토대로 왕실연기지업을 강도에 적용하여 재해석한 백승현의 존재는 부각되었을 것이다.

백승현이 고종에게 건의한 연기업은 사실 그의 전적인 요청이기보다 고종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었다. 백승현에 대한 고종의 전폭적인 신뢰에도 불구하고, 도참에 기초한 백승현의 술법은 신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고종 21년 개경 수창궁과 좌소 아사달에서의 연기업은 강도를 벗어난 육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고종 45-46년의 그것은 강도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것은 출륙을 강력하게 요구하던 몽고에게 오히려 강도에 머물려한다는 의심을 품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군사행동의 빌미를 줄 수 있었다. 따라서 강도를 중심으로 한 연기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백승현을 앞세워 그 술수의 영험함을 신료들에게 증명해야했다. 고종은 재추에게 백승현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라는 칙령을 내렸다.[132] 비서성 소속의 유신인 교서랑 景瑜와 도참과 천문 등을 담당하던 司天局 판사인 安邦悅이 백승현의 능력을 시험하는 담당자로 지명되었다. 그런데 도참에 대한 백승현의 해박한 지식과 언설은 경유와 안방열을 압도하였다. 『고려사』는 그 상황에 대해 "백승현이 여러 마리의 말에 道籙·불경·음양서·도참서를 가득 싣고 와서 이곳저곳에서 인용해 가며 거침없이 궤변을 늘어놓아 그 담봉을 꺾을 수 없었다"고 기록했다. 백승현의 현란한 대응에 압도당한 고려 조정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고종이 백승현을 앞세워 추진한 왕실연기업은 이런 과정을 거쳐 전개되었다.

혈구사·삼랑성·신니동에서 연기업의 내용은 원종 5년(1264)의 연기업을 참조할 때, 가궐 조영과 어의대의 이안, 그리고 혈구사에서의 대일왕도량 설행과[133] 법화경 강설, 삼랑성·신니동에서의 대불정오성도량 설행이었을 것이다.[134] 그중 혈구사는 문수신앙과 관련한 곳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

132)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6년 4월. "命營假闕於三郎城及神泥洞. 先是, 王召術士郎將白勝賢 問延基之地, 對曰, 幸穴口寺, 談揚法華經, 又創闕于三郎城, 以試其驗, 勅兩府, 令勝賢與校書郎景瑜判司天事安邦悅等論難利害, 勝賢以數馬馱道籙佛書陰陽圖讖, 左抽右取, 詭辯不窮, 景瑜等不能折其談鋒, 王皆從之."

133) 혈구사에서 대일왕도량은 원종 5년 6월에도 개최되었다. 『고려사』 권26 원종 5년 6월 임자(9일).

134) 삼랑성과 신니동 가궐에서의 대불정오성도량 설행은 원종 5년(1264) 5-6월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고려사』 권26 원종 5년 5월 계묘(30일); 6월 병오(3일); 신해(8일). 고종 때 역시 설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C-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4. 鄭世臣은 世系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고종 말에 우부승선이 되었는데 왕이 병 때문에 閔脩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정]세신을 혈구사로 보내 法席을 개설하게 했다. [정]세신이 돌아와 그 상황을 아뢰자 왕이 말하기를 "내 꿈에 늙은 비구가 나타나 법화경과 大日經의 偈頌을 외우라고 권했는데 이제 卿의 말을 들으니 정말 꿈과 꼭 들어맞는다. 또한 내가 잠저에 있을 때 혈구사에 놀러가서 文殊鳥의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경 또한 그 소리를 들었는가?"라고 했다. [정]세신이 대답하기를 "神異하고 괴이한 일은 마땅히 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臣이 감히 먼저 아뢰지 않았습니다. 臣이 법석에 가보았더니 정말 왕께서 꿈을 꾸신 일과 꼭 같았습니다. 어떤 늙은 비구가 곁에서 불경을 외우고 있는 것이 어슴푸레 보였다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났지만, 臣은 가버릴까 걱정되어 감히 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또 새가 와서 우는데 그 소리가 '文殊師利摩訶薩'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했다.[135]

자료 C-4는 고종 46년 4월 말에 고종의 병이 깊어지자 우부승선 鄭世臣을[136] 혈구사로 보내 문수보살의 현신을 체험하게 하여 자신의 쾌유를 기도했다. 사실 이때 정세신이 혈구사에서 경험한 神怪한 일들은 고종이 강화에서 보낸 십대에 혈구사를 배경으로 경험했던 神異한 일에 대한 또 다른 간접체험과 現夢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백승현과 문수보살을 통해 이루어졌다. 고종은 늙은 비구가 법화경과 대일경의 게송을 외우라고 권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은 고종의 명에 따라 개설된 법석에서 늙은 비구가 불경을 외우고 있는 것으로 현몽했다. 고종의 꿈과 실제에서 설행된 법석을 主掌한 늙은 비구는 바로 백승현이었을 것이다. 고종은 또 십대에 혈구사에서 文殊鳥의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때 다시 문수조가 '文殊師利摩訶薩'이라고 우는 소리로 재현되었다. '문수사리마하살'은 다름 아닌 문수보살을 가리킨다. 즉 혈구사는 고종이 어릴 때부터 인연을 맺고 있었던 사찰이었고, 말년에는 이곳에서 도참으로

135) 『고려사』 권123 열전36 폐행 鄭世臣.

136) 정세신은 崔沆의 명으로 崔竩에게 예법을 가르친 바 있다.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 최충헌 附 최의. 최의와의 연고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오정변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김준 정권에서 3품직인 우부승선을 지냈다.

무장한 채 늙은 비구로 현신한 백승현이 연기업을 적극 전개했다.

천태종 관련 밀교사찰로 추정되는 혈구사에서는 왕실연기책으로(자료 C-1), 또 고종의 질병을 기양하고자 대일왕도량이 설행되었고, 법화경 법석이 개설되었다(자료 C-4). 대일왕도량이 개최된 것은 이곳이 대일왕(대일여래), 즉 대비로자나불의 常住處였기 때문이다(자료 C-3). 특히 문수보살은 법화경을 전수하고 밀교에서 대일여래의 화신으로 여겨지기도 하여 혈구사에서 문수신앙이 체현되고 법화경과 대일경 법회가 강설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료 C-1에서 백승현은 고종 45년 11-12월경 혈구사・삼랑성・신니동에 가궐을 짓고 어의대를 이안하는 조치와 함께 국왕이 혈구사에 친행하여 법화경을 담양할 것을 요청했다. 연기책의 중심에 혈구사가 있었음과 이를 매개로 한 고종과 백승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백승현의 궤변을 꺾을 수 없었다는 경유의 토로는 그 뒤를 받치고 있는 국왕과 김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혈구사에 가고자했던 고종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뜻하지 않게 병이 위중해져 왕실연기업은 고종의 쾌유를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고종 46년 3월 말 국왕 쾌유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행해졌다. 즉시 죄인들을 석방하고 방생이 이루어졌고,[137] 차도가 없자 보름 후에는 앞서의 조치와 함께 여러 신사와 道殿에서의 기도가 추가로 이루어졌다.[138] 일주일 후에는 그 해의 東堂監試를 정지하고 류경의 집으로 避病했으며,[139] 또 일주일 후에는 삼랑성과 신니동에 가궐을 짓게 하고[140] 왕의 거처를 사당동 閔脩의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자료 C-4에서와 같이 자신을 대신해서 우부승선 정세신을 혈구사에 보내 백승현에게 법화경과 대일경 관련 도량을 열게 하고 문수조를 통해 문수보살의 현신을 간접 체험했다.

자료 C-1의 말미에는 백승현과 경유・안방열의 논쟁 결과 삼랑성과[141] 신니동에 가궐 조영 명령이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이어서 공사를

137) 『고려사』 권24 고종 46년 3월 신미(27일).
138) 『고려사』 권24 고종 46년 4월 갑신(11일).
139) 『고려사』 권24 고종 46년 4월 신묘(18일).
140) 『고려사』 권24 고종 46년 4월 정유(24일). "命營假闕於三郎城及神泥洞."
141) 선문대 동양고고학연구소, 『高麗 假闕址와 朝鮮 鼎足鎭址(지표조사보고서)』, 선문대 동양고고학연구소, 2000 참조.

시작할 수 없었다. 이듬해 2월 마리산 남쪽에 이궁을 창건했다는『고려사』기록은[142]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니동가궐의 창건을 재개했음을 의미한다. 이때의 이궁 창건을 "이 산에 가궐을 창건하면 연기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교서랑 경유의 건의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백승현의 현란한 술수에 압도되어 그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공사 역시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의 병이 깊어져 3월부터 쾌유를 위한 기양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이 백승현을 앞세워 추진했던 혈구사・삼랑성・신니동에서의 연기업은 중단되었고, 모든 관심을 고종 쾌유를 위한 제반 조치 마련과 시행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4월 중순 태자 왕전이 고종을 대신하여 표문을 가지고 몽고로 떠났다. 개경으로의 출륙과 국왕 친조에 대한 몽고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었다.[143] 4월말 삼랑성과 신니동 가궐 조성에 대한 명령이 다시 내려지고 있는 것은 기양의 방향이 고종의 쾌유와 몽고로 원행을 떠난 태자의 무사귀환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 공사 역시 6월 고종의 승하로 완성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고종 45년 말 백승현을 앞세워 고종이 추진했던 혈구사・삼랑성・신니동에서의 연기업은 혈구사에서의 대일왕도량과 법화경 법석의 개최만 이루어지고, 삼랑성・신니동에서의 가궐 조영과 도량 설행은 개최하지 못하는 미완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것은 원종 5년 재추진되어 두 곳에서의 가궐 창건이 이루어지고(자료 C-2), 혈구사에서의 대일왕도량도 설행됨으로서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144]

---

142)『고려사』권24 고종 46년 2월 갑오(20일). "創離宮于摩利山南. 先是, 校書郎景瑜, 請於是山創闕, 則可延基業, 從之." 선문대 고고연구소,『강화도 마니산 고려 이궁지(지표조사보고서)』, 선문대 고고연구소, 2001 참조.

143) 고종은 몽고에 보낸 표문에서 권신 崔瑀의 제거와 출륙을 위한 준비,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태자가 친조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려사』권24 고종 46년 4월 갑오(21일). 태자의 몽고 入朝는 항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 고려와 몽고는 전쟁을 끝내고 강화했다. 태자 입조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고종 45년 12월 朴希實・趙文柱가 사신으로 파견되어 몽고 헌종을 만나 출륙 등에 대한 사항을 조율했다. 강재광,「1258-1259년 장군 朴希實・趙文柱의 對蒙外交와 對蒙講和」,『한국중세사연구』제34집, 한국중세사학회, 2012, 243-275면.

144) 이에 대해 고종의 가궐 營始 명령은 국왕의 병환 내지 승하로 완성되지 못하다가 이때 이루어진 설계와 기초공사를 바탕으로 원종 때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讖說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신비력의 加護陰助를 받으려는 백승현의 조급한 심리를 배경으로 원종 때 짧은 시일에 공사가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 李丙燾, 앞의 책, 296-297면.

신니동가궐의 위치에 대해서는 禪源寺址[145] 또는 경내의 부속 건물로[146] 비정되고 있다. 그 근거는 터에 초석이 잔존하거나 금동불이 출토되었다는 것과 수차례에 걸친 답사 결과였다. 또 1914년 3월 조선총독부의 부군면통합(부령제111호) 이전에 선원사지가 위치한 곳의 지명이 神智洞이었고, 부근에 있는 마을이 神芝洞이라는 점도 선원사지를 중심으로 신니동가궐터를 비정하는 주요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이 견해는 고종 46년 2월 마리산 남쪽에 조성된 이궁과 신니동가궐을 별개로 파악한데서 생긴 오류라고 판단된다. 마리산 남쪽의 이궁과 신니동가궐은 같은 곳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종 5년(1264) 국왕의 몽고 친조를 기양하기 위해 재추진된 백승현의 연기업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의 연기업은 백승현이 당시 실권자였던 김준을 통해 건의하는 형식이었지만(자료 C-2), 사실 친조만은 막으려는 원종과 김준의 고육지책에서 앞서 추진했다가 완전히 시행되지 못한 혈구사・삼랑성・신니동 가궐 조성과 대일왕도량 및 대불정오성도량의 개최가 재추진된 것이다. 이번에는 그 효험으로 원종이 친조하지 않아도 되고 삼한이 변해 震旦이 되어 大國이 조공을 바치러 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되었다. 그리고 연기책은 다음의 과정으로 실행되었다.[147]

① 5월 29일: 長峰宮으로 移御
② 5월 30일: 처음으로 삼랑성가궐에서 4개월동안 대불정오성도량 개최
③ 6월 3일: 원종이 삼랑성가궐의 (대불정)오성도량에 행차
④ 6월 7일: 원종이 묘지사에 행차했다가 마리산참성에서 親醮
⑤ 6월 8일: 원종이 신니동가궐에 이어하여 대불정오성도량 개최
⑥ 6월 9일: 혈구사에서 대일왕도량 개최
⑦ 6월 12일: 혈구사에서 行香

145) 朴憲用 編, 『續修增補江都誌』, 1932, 古蹟; 李丙燾, 앞의 책, 298면; 이종철・조경철・김영태, 「江華 禪源寺의 위치 비정」, 『韓國禪學』 제3집, 한국선학회, 2001 참조.
146) 김병곤, 「江華 禪源寺와 神泥洞 假闕의 位置 比定을 위한 基礎 資料의 分析」, 『진단학보』 제104집, 진단학회, 2007, 73-103면; 「사적 제259호 강화 선원사(江華 禪源寺)와 신니동(神泥洞) 가궐(假闕)의 위치 비정」, 『불교학보』 제48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8, 285-315면.
147) 『고려사』 권26 원종 5년 5월; 6월 참조.

⑧ 6월 13일: 장봉궁에서 참형과 교수형을 제외한 죄수 사면

원종의 몽고 친조에 대한 백승현의 연기업은 보름에 걸쳐 진행되었다. 고종 말의 그것은 혈구사가궐에서 대일왕도량을 개최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랑성과 신니동 가궐에서의 대불정오성도량이 보조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원종 때의 연기업은 삼랑성가궐에서의 대불정오성도량이 중심이 되고 신니동과 혈구사 가궐에서 대불정오성도량·대일왕도량이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정점에 마리산참성에서의 친초가 있었다. 특히 삼랑성가궐에서 대불정오성도량을 4개월 동안 설행한 것은 원종이 강도를 출발해서 몽고 친조를 마치고 다시 고려까지 귀국하는 일정 내내 모든 여정에 대한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원종은 이해 8월 12일 몽고로 출발했고,[148] 몽고 원행을 마친 후 12월 6일 의주를 거쳐[149] 22일 梯浦館으로 돌아와[150] 몽고 원행은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원종은 6월 3일 대불정오성도량에 참석하기 위해 삼랑성가궐에 갔다가 4일 후인 6월 7일 묘지사를 거쳐 마리산참성에서 친초하고, 다음날 신니동가궐에서 다시 대불정오성도량을 개최한 후 6월 9일 혈구사에서 대일왕도량을 설행했다. 그런데 원종이 마리산참성에서의 친초를 마치고 옮겨간 신니동가궐은 현재 비정되고 있는 선원사지이기 보다 고종 45년 2월 마리산 남쪽에 창건된 이궁, 현재의 고려이궁지일[151] 가능성이 있다. '摩利'·'摩尼'와 '神泥'의 음사가 유사하다는 점, 즉 단군의 제천처라는 전승을 가진 참성단이 있는 마리산의 神聖性에 비유해서 그 남쪽의 지명이 神泥洞이 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이다.[152] 마리산이궁이 백승현의 연기업 범위에서 창건된 것이고, 그 역시

148) 『고려사』 권26 원종 5년 8월 계축(12일).
149) 『고려사』 권26 원종 5년 12월 병오(6일).
150) 『고려사』 권26 원종 5년 12월 임술(22일).
151) 강화군향토유적 제13호로 興旺離宮址라고도 한다. 마니산 남록의 화도면 흥왕리 산51에 위치했는데, 대형 할석을 이용한 석축과 다수의 초석들이 산견된다. 2001년 선문대학교의 지표조사 결과, 이궁 영역은 사방 약 70m 정도로 추정되었다. 선문대 고고연구소, 앞의 책, 2001 참조.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 2018년에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강화 흥왕리 이궁지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9 참조.
152) 김창현은 神泥洞을 선원면 神智洞(智山里)으로 비정하고, 숙종 때 김위제가 남경 경영을 주장하

혈구사・삼랑성・신니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마리산이궁과 신니동가궐을 굳이 별개의 시설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특히 고종 말과 원종 초 백승현에 의해 이루어진 혈구사・삼랑성・신니동 가궐에서의 연기업을 명종 때 삼소에서의 연기업과 비교할 때, 마리산이궁과 신니동가궐은 같은 지역 범위에 있어야 한다. 또 원종이 마리산참성에서 친초를 마치고 옮긴 신니동가궐은 마리산 주변에 있어야 정황에도 맞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시기 추진된 연기업은 혈구사・삼랑성・신니동에 더하여 마리산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고종 말에 창건된 마리산이궁과 원종 초에 실행된 마리산참성 친초의 역할을 백승현의 연기업 범위에서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한편 창건에 소요되는 기간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종 때 배주의 중흥궐 창건이 2개월 정도 걸린 것과 명종 때 삼소 중 하나인 북소 기달산의 가궐 규모가 108칸이었음을 고려할 수 있다.[153] 고종 말 원종 초 강도에서의 가궐 규모와 조영기간은 앞서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간과 규모에서 축소 운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원종 5년 5월과 6월 삼랑성과 신니동 가궐에서 대불정오성도량을 설행한 것을 참고할 때, 고종 46년 4월 말 창건된 삼랑성과 신니동 가궐에서도 대불정오성도량을 설행하고자 했을 것이다. 여기서 불정은 부처의 정수리로 지혜를 상징하며 『佛頂尊勝陀羅尼經』과 관련한 밀교와 도교가 섞인 법회를 의미한다.[154]

고종 말에 추진된 연기업의 목적은 원래 몽고 친조와 출륙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국왕을 대신하여 몽고로 간 태자의 무사귀환과 고종의 急病 때문에 쾌유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 추진되었다. 반면에 원종 초의 연기업은 어쩔 수 없는 국왕의 몽고 친조에 대한 장도를 기원하는 것이었는데, 그 명

며 인용한 『神誌祕詞』의 神誌와 관련한 仙人으로 추측했다. 김창현, 「고려 강도의 신앙과 종교의례」, 『인천학연구』 제4집,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2005, 24-25면.

153)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4년 11월.

154) 대불정오성도량은 佛頂道場의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高麗時代 國家的 佛教行事에 대한 硏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이에 대해 치성광불정을 중심으로 오성신앙이 결합한 법회로 파악하는 견해와 佛頂을 숭배하는 밀교와 五星을 숭배하는 도교, 그런 五星崇拜를 받아들인 밀교신앙이 혼합된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 김수연, 「고려시대 佛頂道場 연구」, 『이화사학연구』 제38집, 이화여대 사학연구소, 2009, 1-32면; 김창현, 앞의 글, 2005, 22면.

분은 '三韓變爲震旦'으로 大國들이 來朝할 것이라는데 있었다. 이것은 의종 12년(1158) 중흥궐 창건이 北虜의 병탄에 있었고, 고종 21년(1234) 남경 가궐 창건이 國運의 8백 년 연장에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155] 그만큼 延基를 위한 상황이 급박했고 현실이 녹록치 않았음을 반증한다.[156]

5. 맺음말

무신집권기 이후 왕실연기업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고려 최대 길지였던 서경과 삼경 중에 하나였던 남경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다. 양경 이외의 다른 길지가 모색되었는데, 北虜(금)를 경계한 배주에서의 중흥궐 창건이었다. 그렇지만 무신들이 집권하면서 왕실연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대신 산천비보도감·重房堤로 대표되는 무신들의 연기업이 중방을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명종 4년의 三蘇 조성 역시 무신집정자의 일정한 영향 아래 추진된 것이었다. 무신들은 문신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를 확인하려 했고, 무신이 관련된 건물·관청의 地氣를 비보하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였다.

고종 3년(1216) 8월 거란유종의 침략은 중방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서반의 연기업에 일정한 전환을 가져오게 했다. 위기감을 가진 최씨정권이나 왕실 모두 그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거란의 구략이 개경 가까이 이르게 된 상황에서 "쇠진한 松山의 王氣를 북돋는 방법으로 최충헌의 별궁인 竹坂宮 또는 梨峴에 위치한 최우의 집으로 이어가 이루어졌음은 단적인 예이다. 결국 최선의 연기업은 무신집정자 권력 아래에서의 왕실 유지였다. 또 최충헌은 흥왕도감을 설치하고, 술사 李知識의 이론을 앞세워 성종의 眞殿이었던 乾元寺를 부수어 액막이하고, 백악에 새 궁궐을 지었으며, 고종의 거처를 賢聖寺로 옮겼다. 그 목적은 거란 침입을 기양하여 왕실의 연기

155) 남경 가궐을 중심으로 한 연기업 역시 강도에서 추진된 것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수십여년동안 전란이 장기화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경-남경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156) 한편 백승현은 도참에서 姬龍의 후손이 있어 重興한다는 말을 근거로 주나라 康王의 諱인 '釗'자로 국왕의 御押을 바꿀 것을 원종에게 건의했는데(자료 D-3), 이 역시 주나라 8백년 태평성대를 배경으로 한 참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를 위한 것이었지만, 내면에는 최씨정권의 연기에 있었다.

몽고의 침략으로 고종 19년(1232) 6월 전격 추진된 강화 천도는 연기업의 방법과 장소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수반했다. 고종 21년 扶踈山에서 갈라진 좌소 阿思達로 비정된 옛 양주 땅에 남경 가궐을 짓고 어의를 봉안했고, 개경 수창궁에 太祖神御를 봉안하여 어의와 함께 4개월을 단위로 개경과 남경에 교차 봉안하는 연기업을 실행했다. 국운이 8백년 연기된다는 도참승의 요청을 따른 것인데, 강도에서 국왕이 개경과 남경에 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나라 8백 년 왕업이 고려왕조에 지속될 것을 염원한 것이었다. 〈고려세계〉에서 부소산 좌소는 삼한을 통합할 인물의 출생을 예언 받은 고려왕실의 永業地였다. 이때 그곳을 고조선의 도읍지인 아사달로 인식하고 옛 양주 땅인 남경으로 비정하여 가궐을 짓고 있음은 "부소산 좌곡=왕실 영업지=좌소=아사달"이라는 새로운 도참설이 고종 21년 전후 왕실 연기를 위해 유포된 사실을 전해준다. 삼소와 관련하여 운영되었던 삼경 중에 남경이 왕실영업지였던 좌소, 도참에서 좌소 백악, 단군전승에서 고조선 도읍지[길지]인 백악산아사달과 융합되면서 좌소 아사달로 비정되었다. 하지만 전쟁의 수습책으로 몽고가 출륙과 국왕 친조를 제시함으로서 이를 타개할 또 다른 연기책이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몽고는 지속적으로 국왕 입조와 개경으로 환도를 요구했고, 고종 44년(1257) 고종을 대신하여 태자 王倎의 입조가 결정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김준이 최의를 제거하고 형식적인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태자의 입조 조건에 대한 1년 반 이상 신경전 끝에 고종과 김준은 백승현의 이론을 토대로 연기업을 실행했다. 개경으로의 환도를 탐색하면서도 강도에서의 국정운영까지 함께 고민하는 상황에서 강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백승현의 延基之業이 부각되었을 것이다. 그 내용은 앞서 추진되었던 삼소에서의 연기궁궐 조성과 비교할 수 있는 혈구사・삼랑성・신니동에서의 이궁・가궐 창건, 어의대의 봉안, 문수신앙을 배경으로 한 법화경 법석과 대일왕도량・대불정오성도량 개최였다.

고종 46년 2월 마리산이궁(신니동가궐)의 창건이 시도되었지만, 3월 고종의 급병과 4월 태자의 몽고 원행으로 연기 목적은 국왕의 쾌유와 태자의 무

사귀환으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6월 고종의 승하로 연기업은 중단되었다. 고종 45-46년 추진된 연기업은 백승현이 주석하고 있던 혈구사에서의 대일왕도량과 법화경 법석의 개최만 이루어지고, 삼랑성·신니동에서의 가궐 조영과 도량 설행은 개최하지 못함으로서 미완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것은 원종 5년(1264) 원종의 두 번째 몽고 친조에 대한 무사귀환을 목적에서 삼랑성가궐을 중심으로 재추진되었다.

▮ 참고문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국통감』, 『매월당시집』, 『목은시고』, 『무명자집』, 『삼국유사』,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朴憲用 編, 『續修增補江都誌』, 1932.

강재광, 「1258-1259년 장군 朴希實·趙文柱의 對蒙外交와 對蒙講和」, 『한국중세사연구』 제34집, 한국중세사학회, 2012, 243-275면.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강화 흥왕리 이궁지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9.

김병곤, 「江華 禪源寺와 神泥洞 假闕의 位置 比定을 위한 基礎 資料의 分析」, 『진단학보』 제104집, 진단학회, 2007, 73-103면.

_____, 「사적 제259호 강화 선원사(江華 禪源寺)와 신니동(神泥洞) 가궐(假闕)의 위치 비정」, 『불교학보』 제48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8, 285-315면.

김성환, 「고려시대 중고의 인식과 도참」, 『사학연구』 제61집, 한국사학회, 2000, 61-88면.

_____,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경인문화사, 2002.

_____, 「고려 원종의 摩利山塹城 親醮와 壇君」, 『민족문화논총』 제59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5, 3-36면.

김수연, 「고려시대 佛頂道場 연구」, 『이화사학연구』 제38집, 이화여대 사학연구소, 2009, 1-32면.

김창현, 「고려 강도의 신앙과 종교의례」, 『인천학연구』 제4집,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2005, 1-37면.

_____, 「고려 江都의 문수신앙과 관음신앙」, 『한국중세사연구』 제23집, 한국중세사학회, 2007, 191-230면.

_____, 「공민왕 중반 천도론과 三蘇 경영론」, 『서울과역사』 제106호, 서울역사편찬원, 2020, 207-263면

김형우, 「高麗時代 國家的 佛教行事에 대한 硏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선문대 고고연구소, 『강화도 마니산 고려 이궁지(지표조사보고서)』, 선문대 고고연구소, 2001.

선문대 동양고고학연구소, 『高麗 假闕址와 朝鮮 鼎足鎭址(지표조사보고서)』, 선문대 동양고고학연구소, 2000.

윤용혁, 「무인정권, 그리고 전란 속의 왕권—고려 고종(1192-1259)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제12집, 한국인물사연구회, 2009, 105-140면.

李丙燾, 『高麗時代의 硏究』(개정판), 亞細亞文化社, 1979.

이재범, 「최씨정권의 성립과 산천비보도감」, 『사림』 제5집, 수선사학회, 1989, 3-21면.

이종철·조경철·김영태, 「江華 禪源寺의 위치 비정」, 『韓國禪學』 제3집, 한국선학회, 2001, 25-47면.

河廷龍, 『『三國遺事』 史料批判』, 民族社, 2005.

【Abstract】

The Temporary Palace Building and Prayer Ritual for the Preservation of the Goryeo Royal House During the Era of Gang-do Capital (江都)

Kim, Sung-Hwan*

The rapid transfer of the capital, Ganghwa Island, in the nineteenth year of King Gojong (1232) brought about by the Mongol invasion accompanied a fundamental re-examination of the method and location of the prayer ritual. In the twenty-first year of King Gojong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ld Yangju (楊州), designated as Asa-dal (阿思達), which in turn formed the Jwaso (左蘇, a term in Feng shui referring to the left part of an auspicious place) which was divided by Buso mountain (扶踈山), the temporary royal palace of the Namgyeong (南京) was built, and the king's royal clothing enshrined within it. Likewise, the portrait of King Taejo was enshrined at the Suchang-gung palace (壽昌宮) in Gaegyeong (開京), and the prayer ritual was carried out every four months in turns at Gaegyeong and Namgyeong. With the king unable to travel to Gaegyeong or Namgyeong due to the Mongol invasion, this was a prayer that the rule of the Zhou dynasty would be linked to the Goryeo dynasty for 800 years.

By this method, however, the idea of Jwagok (左谷, another name for the left side of the auspicious place) of Buso mountain (the hereditary territory of the Goryeo royal house) was combined with that of Jwaso of Baegak mountain from the prophecy and the place of good fortune of Ancient Joseon's Baegak mountain and Asa-dal from the Tangun legend, creating a different result from the prayer ritual with its origin in the designation of Asa-dal's designation as Jwaso. As an alternative plan to war and to have the Mongols leave Gang-do Capital, and to enable the king himself to visit the Yuan empire, a different prayer ritual was needed. The emergence of Baek Seunghyun (白勝賢)'s prayer ritual was such an alternative.

The content of this ritual was to serve as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Daeilwang-doryang (大日王道場) and Daebuljeong-oseong-doryang (大佛頂五星道場,

* Director, GyeongGi Province Museum.

types of Buddhist ceremonies) as well as the Buddhist ceremonial reading of the Lotus Sutra, a Buddhist scripture combining esoteric Buddism and Taoism against the backdrop of the Munsu faith, the enshrinement of the king's clothes and belt,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palaces to include temporary palaces in Hyeolgu-sa (穴口寺), Samrang-seong (三郎城) and Sinni-dong (神泥洞) which could be compar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palace serving as the site of the prayer ritual at Samso (三蘇, a Feng Shui term referring to a trio of auspicious places). Due to the death of King Gojong, however, the prayer ritual of King Gojong 45-46 at the Hyeolgu-sa temple contains only the Daeilwang-doryang and the reading of the Lotus Sutra; the Practice of Buddhist ceremonie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temporary palace at Samrang-seong and Sinni-dong could not be included. Thus, in the fifth year of King Wonjong (1264), the ritual was repurposed with the temporary palace of Samrang-seong as the center for prayers for the safe return of the emperor from his voyage to visit the Mongol Emperor in Beijing.

Keywords: Royal house's prayer ritual (延基業), Gang-do Capital, Goryeo royal house, Samso (三蘇, Feng Shui: trio of auspicious locations), Jwaso (左蘇, Feng Shui: Left part of an auspicious place), Baek Seunghyun (白勝賢), Hyeolgu-sa temple (穴口寺), Samrang-seong temporary palace.

접수일: 2020.09.23. || 심사일: 2020.10.07. || 게재확정일: 2020.11.16.